

Nov 12. 2017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1:00 인도: 김원기 목사

Offering 헌금기도 사회자 Presider

☉ Praise 찬 송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주님)

☉ Prayer 참회기도 다같이 Together

☉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Together

Hymn 찬 송 301장 (통460장)

Prayer 기 도 라태한 장로

Announcement 교회소식 사회자 Presider

Scripture Reading 성경봉독 1부 엡4:1-16 / 2부 딤훈 2:11-14

Choir 성가대찬양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Sermon 말 씀 김원기 목사

‘같은 자’ / ‘하나님의 백성이다’

☉ Prayer 기 도 다같이 Together

☉ Benediction 축 도 김원기 목사

오후 찬양예배

❖ 주일 오후 1:30

☐ 정기 제직회, 남여 선교회

금요 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

☐ 말씀: 룻기 1:1-5 ☐ 본문: 흥년이 든 땅 ☐ 기도: 합심기도

기타 예배 안내

☐ 새벽 기도회 ❖ 월요일 자유기도, 화요일부터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 교육부 예배 ❖ 주일 오전 11:00 / 주일 오후 1:30

구역별 모임 안내

☐ 고구마- 구역장 : 최영애권사 인도 : 성기현장로
☐ 감자 - 구역장 : 김경식장로 인도 : 사라를집사
☐ 무 - 구역장 : 김봉재권사 인도 : 황창원전도사
☐ 배추 - 구역장 : 새가족부 인도 : 김원기목사
☐ 실버 - 구역장 : 정선옥사모 인도 : 정윤두목사

† 선교의 끈을 쥐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 2017년 표어 “예수님처럼-말씀대로”(요15:10)
- 이달에 읽을 성경은 역대 하 입니다.
- 2017년 10월 행사
12일: 정기 제직회, 남여 선교회
19일: 추수 감사절 연합예배(총동원주일), 성찬식
23일: 추수 감사절
26일: 2018년 정책 카운셀(예배 후 교육관), 교역자회의, 생일축하
- 김옥련 권사님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힘써 기도합니다.
- 환우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숙한 오후 시즌2 교재를 읽고 독후감을 12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Letter용지 1장)
- 예배 설교 CD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도용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성숙한 오후 매주 주일 오후(1:30 pm)
#매주 토요일 커피브레이크(6:00 am)
#토요새벽기도: 성승록권사11월18일, 김봉재권사11월25일, 장정남권사12월2일
#2017년 성도의 삶 - 말씀의 부흥과 영적인 성숙을 이룹니다.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다합니다.
- 말씀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합니다.
- 교우등정 - 이선화권사 병가료중. 이주영사모 모국 방문.
†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 전 안내석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 ☐ 기도 : 1부- 합심기도 2부- 이화정장로
- ☐ 안내 : 1부- 황창원전도사 2부- 황동균집사
- ☐ 예배 특송 : 성가대찬양 ☐ 찬양예배 기도 : 합심기도

교회를 섬기시는 분

- ☐ 행정목사 : 이호중 ☐ 교육목사 : Ariel Flores
- ☐ 전도사 : 황창원 ☐ 시무장로 : 김경식 성기현 조홍진
- ☐ 음향간사 : 장정관 ☐ 협동장로 : 이화정

헌 금

OFFERING Devotion

십의일조 : \$.00	선교헌금 : \$.00
주일헌금 : \$.00	
감사헌금 : \$.00	EM헌금 : \$.00
자녀헌금 : \$.00	
지난주일 합계 : \$.00	

디도서 1:1-9 "그레데에 남겨둔 사람"

1. 바울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 디도(4)

1)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1)

하나님의 종: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의미를 준다.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한다. 바울은 그레데에 있는 유대인들이 복음전파 방해할 염두 해 둔 것이다. 이것은 복음에 대한 의지이다.

그리스도의 사도: 사도라는 말이 전달자, 전령자이다. 바울은 구약시대의 선지자의 계승자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신 복음의 전달자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2) 영생의 소망(2)

영생의 불변성이다. 또는 영생을 약속하신 불변성이다. 2절에 '영원한'이라는 단어로 '크로논'이라는 말을 쓰는데 지속되는 시간이라는 의미이다. 즉 하나님의 구원은 지속되는 시간 이전에 있었다는 의미이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이러한 개념의 소유자이다.

3) 전도자의 소명(3)

3절에 '구주'라는 말은 하나님과 주님을 동시에 표현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소명이기도 하며 주님의 소명이기도하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 복음은 전해지고 있었다.

2. 나의 참 아들 디도(4)

디모데전서1:2절에 디모데에게도 한 말이다. 이 용어를 사용할 때는 바울 자신이 개종시킨 자들을 부르는데 사용하는 호칭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신이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참 아들이라 하는데 그 의미는 개종자가 많았으나 디도처럼 바울의 믿음을 물려받아 개종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 교회의 목회자로 쓰임을 받는데 이른다. 그러한 의미로 참이라 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약의 12권에 이르는 성서의 집필자인 바울의 신앙과 믿음을 공유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또한 참 아들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도전이기도 하다. 나에게 얼마나 '나의 참 아들'이 있는가?

3. 그레데에 남겨둔 사람 디도(5)

1) 정리하는 것(5)

예전 번역에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로 해석되어 있다. 어찌 보면 그 말이 더 이해가 쉽다. 흐트러지고 복잡한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다. 정리가 중요하다. 10절과 11절의 영향으로 16절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다.

할례파의 영향: 할례파는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이다. 이들은 몸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주장하는 자들이다. 과거에 믿음의 조상들은 이 할례를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을 논박하면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짐을 선포하였다.

롬10:9-10,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롬2:28-29,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하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이면적 유대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표면적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면적 그리스도인을 위해서다.

2) 장로를 세우는 것(5)

장로는 사도행전 11장에 처음으로 언급한다. 그리고 14:23에 바나바와 함께 장로들을 임명한다. 이들은 감독자(행20:28)로 불리기도 하고, 수고하는 자(고전6:16)로 불리어 진다. 수고하면서 감독하는 자들이 장로들이다. 교회의 일꾼들의 개념은 수고하고 감독하는 것이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한다.

장로가 갖추어야 할 덕목: 6절-가정이 온전해야 한다. 7절-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8절-나그네를 대접하는 자이어야 한다. 9절-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이어야 한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요15:10)



담임목사 : 김원기
(Pastor, Wonki Joseph Kim)

www.dongsanoflove.org
(교회) 9440 Balboa Bl, Northridge, CA 91325

☎ 818.518.5108(교회)